

# 새마을금고 '뱅크런' 진정세... 자금 이탈 하룻새 1조 줄어

### 정부 대응단, 사태 진화 총력전...부실 금고·연체율 급등 문제 정리 착수 예정

새마을금고가 올해 들어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부실 논란에 휩싸이자, 자금 회수에 나서는 지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광주일보 7월 7일자 9면)와 관련, '뱅크런' 사태 진화에 나선 범정부 총력전에 이탈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하루 사이 인출 규모가 1조원 가량 줄어들었고 고객들도 붐볐던 영업점들도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 사태가 예상보다 일찍 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범정부 대응단은 고객 동요가 수그러들면, 이번 사태의 발단인 부실 금고 정리작업과 연체율 급등 문제 정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주말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금요일 인출 규모는 전날(목요일)보다 1조원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커진 지난주 내내 확대 분위기의 자금 이탈 규모가 지난 7일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광주지역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6일까지만 해도 예·적금 중도해지 및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붐볐던 광주시 서구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은 다음날인 지난 7일에는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이었다.

해당 영업점 관계자는 "간혹 관련 문의를 위한 전화는 오고 있으나 예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은 크게 줄었다"며 "예금 해지를 문의하러 온 고객들도 상담을 받은 뒤에는 그냥 돌아가곤 한다"고 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를 믿어달라', '안심해도 좋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잇따른 메시지가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 한 새마을금고 고객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 당초 약정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겠다는 '비상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철 MG동명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영업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안전하니 출금하지 말라고 설명을 했고, 7일부터 확실히 고객들의 불안이 감소한 것

같았다"며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를 감수할 정도가 아니라고 여긴 고객들은 다시 재예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불안 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이 잦아들면 근본적인 건전성 강화 대책 및 관리 체계 정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급등한 연체율이 '불안의 고리'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부실채권 매각 및 연체율 감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연체율 상위 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치 및 이행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실채권(NPL) 매각 규모도 키운다.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수 규모는 1000억원이었으나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도 금고별 매각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내규 개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규상 매각 가능한 대부업체 요건을 현행 자본금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매각 가능 업체 수는 67개에서 196개로 늘어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높이거나

### 금융당국, 8월 최종안 마련... "건전성 우려 해소 후 논의" 시각도

예금자별 5000만원에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새마을금고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9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 손실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1억원으로 올릴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각 시나리오에 목표자금 규모, 이에 따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수치 조정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대규모 자금 이탈세가 나타나자 이번 기회에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위기 때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고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및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쥘지다.

그러나 한도 상향 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각 상호금융중앙회 보호 한도를 높여줘 될 텐

데 부실 우려가 자극된 상황에서 상향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서 상호금융권 한도를 그대로 둘 경우 대규모 자금 인출 등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같이 올려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높아지고 경제감이 커진 상황에서 한도를 2배로 올릴 경우 사고 발생 시 규모를 굉장히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금융권 불안 완화 등 시장 안정이 선행된 뒤 한도 상향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도 상향으로 인한 예보료율 인상에 모든 금융업권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금융당국도 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권 예보로 인상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현대차그룹, 반도체 수급 '글로벌 행보'

### 정의선 회장,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인텔 아일랜드 캠퍼스 방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인텔의 아일랜드 캠퍼스(Intel Ireland's Leixlip campus)를 방문했다.

정 회장은 이날 아일랜드 킬데어주(County Kildare) 레익슬립(Leixlip)에 위치한 인텔의 아일랜드 캠퍼스에서 인텔의 글로벌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반도체 생산 공정을 둘러봤다.

정 회장의 이번 방문은 최근 각국의 주도권 경쟁 속에 요동치고 있는 글로벌 주요 시장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을 파악, 향후 차량용 반도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상시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1989년 가동에 들어간 인텔의 아일랜드 캠퍼스는 유럽 내 핵심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텔은 현재 아일랜드 캠퍼스에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 '팹 34(Fab34)'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다. EUV(극자외선)를 이용하는 최신 제조 설비를 갖춰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유럽 내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 회장은 앤 마리 홀즈 인텔 반도체 제조그룹 공동 총괄 부사장의 안내로 '팹24'의 '14나노 핀펫(14FF)' 공정을 둘러봤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될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개발 및 기술 역량 내재화를 그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텔 아일랜드 캠퍼스' 팹24에서 정의선(왼쪽 두 번째) 회장이 앤 마리 홀즈(왼쪽 세 번째) 총괄부사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2020년에는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트론 반도체 사업 부문을 합쳤다. 현대차그룹은 시스템 및 전력 반도체의 핵심 기술

을 조기에 내재화해 해당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차세대 고성능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화학물 안전관리 '찾아가는 중기 설명회'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20일

지역 중소기업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는 20일 광주에서 열린다.

9일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와 환경부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대 권역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상세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0일 인천을 시작으로 대전 12일, 부산 18일, 대구 19일, 광주 20일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 장소는 광주상공회의소다. 현장에서 화학안전관

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지원 사업과 맞춤형 특별안전교육, 화학안전 설비 교체·개선 비용지원 사업(국비 70%)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또 중기중앙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사업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가 화학안전 이행과 ESG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참가 기업 모집

### 전남도 21일까지

전남도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온라인 판매 가능한 전남지역 중소기업 50개 사를 선정해 ㈜위메프 입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필요서류를 준비해 전남중소기업입자리경제진흥원 이메일(ksg8603@jepa.kr)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경쟁력, 기호성 등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10개 기업, 위메프

기획전 2회 참여 50개 기업, 방송 판매자(쇼호스트) 활용 실시간 소품판매(라이브커머스) 1회 3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785개 기업을 입점시켜 22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온라인 채널 판매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매출 증대 효과가 높다"며 "다양한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치코인" 10개 중 9개 시세 조정 자주 관측

### 금융연구원 연구원 보고서

국내 업체가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김치코인' 10개 중 9개에서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펌프앤덤프'로 추정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9일 '한국 가상자산시장과 '펌프앤덤프' 현상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펌프 앤덤프' 방식의 시세조종이 자주 관측된다.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후, 자전세력이 오를 가격에서 자산을 매도하면 가격이 급락하는 식이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펌프앤덤프'는 여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으로 약 10분간 지속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유동성이 낮고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자산 일수록 '펌프앤덤프'의 타깃이 되기 쉽다.

백 연구원이 지난 2010년 10월 김치코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1만6560건의 시간별 가격, 거래량 중 최대 약 4.7%가 '펌프앤덤프' 사례로 분류됐다. 또한 김치코인 23개 중 21개(91.3%)에서 '펌프앤덤프'로 추정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백 연구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용이한 데다 입법 미비로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의 상장 심사 절차가 불투명하고 투자자와 프로젝트 업체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기법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75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23	24	35	44	45	1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896,337,167	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27,153,161	160
3	5개 숫자일치					1,579,821	2,750
4	4개 숫자일치					50,000	134,529
5	3개 숫자일치					5,000	2,267,024

강력한 세척 '버블폭포' 경험하세요  
삼성전자는 10일 강력한 세척력을 자랑하는 '버블폭포' 기능을 전 라인업에 적용한 2023년형 전자동 세탁기 '그랜드 통버블' 신제품을 출시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